

## 욥기 30:22하반절 ‘크티브’/‘크레’의 선택과 문학적-수사학적 번역

안근조\*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과제는 욥기 30:22하반절의 번역과 관련하여 마소라 텍스트의 난외주(*Masorah parva*) 지시대로 ‘크레(Qere)’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번역들과 같이 ‘크티브(Ketib)’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왜 현재의 성서 번역본들은 쓰기 전통인 크티브에 근거하고 반면에 수정된 읽기 전통인 크레를 수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주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소라 본문의 형성사를 통해 밝힐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다수의 번역 작업과는 달리 욥기 30:22하반절의 본문을 크티브가 아닌 크레로 읽었을 때 도리어 본문이 전달하는 더욱 풍부한 수사학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번역자들에게 크티브/크레 전통의 세심한 배려와 주의 깊은 선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본문 비평적 읽기 너머의 문학적비평적 읽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성서번역에 있어서 기계적이고 문법적인 선택에서 더 나아가 문학적-수사학적 선택이 크티브/크레 결정의 기준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크티브/크레 체제의 출현과정과 본문비평 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살피고 오늘날 학자들과 번역자들의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욥기 30:22 본문에서 왜 크레의 교정읽기를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본문비평적 입장과 주석적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기존 번역본들과 달리 크티브가 아닌 크레를 선택하여 본문 30:22하반절을 새롭게 번역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사비평적 문학적 함의가 해당본문 30장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의 신학적, 문학적 내용과 적절히

---

\* Bos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구약학 교수.  
keunjoahn@hanmail.net.

상응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크티브/크레 선택에 따른 다양한 해석학적 대안들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문비평과 수사학적 비평의 통합적 읽기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성서번역자들이 고려해야 할 번역비평적 제언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크티브’/‘크레’ 체제의 출현 과정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크티브’/‘크레’ 체제의 본문전통이 생기게 된 이유는 마소라 학자들의 기록한 문서에 대한 보수적이고도 경건한 태도에서 연유한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본문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본문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수세기를 거쳐서 전해져 온 자음본문의 경우 자음철자의 오류가 전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모음 없이 읽어오던 자음본문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혼돈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경외감이 쓰거나 읽기에 있어서 임의적 수정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쓰기 전통의 크티브를 본문에 그대로 놔둔 채, 본문의 난외주에 읽기 전통의 크레를 표기하되 크레 발음의 모습들을 본문의 크티브에 적용하여 기록한 것이 크티브/크레 전통의 발단이다.<sup>1)</sup> 그러나 다른 부류의 본문비평 학자들에 따르면 난외주의 크레는 오기의 수정보다는 다양한 본문 전통의 반영으로 보기도 한다.<sup>2)</sup> 즉, 성서본문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던 마소라 학자들이 본문을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단어나 의미를 생성했다고 보기는 오히려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마소라 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던 대다수의 본문전통을 선택하여 읽다가 이따금 같은 본문에 대한 상이한 읽기 전통이 갈등을 빚게 될 때 또 다른 읽기를 난외주에 표기하여 두었다는 것이다. 올린스키(Harry M. Orlinsky)와 같은 학자들은 처음에 마소라 학자들이 대표적인 세 개의 본문사본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한다. 세 본문이 일치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 두 본문의 읽기 전통을 모음화 하여 크레로 표기하고 다른 하나의 읽기 전통의 단어는 크티브로 그대로 본문에 남겨놓았다고 주장한다.<sup>3)</sup> 그러나 יהוה를 ארני로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읽는 것을 공식화된 *Qere Perpetuum*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문읽기에서 수정작업이 불가피

1) Em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58.

2) Ibid., 61.

3) Harry M. Orlinsky, “Studies in the Septuagint of the Book of Job”,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6 (1965), 38.

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크티브/크레 출현의 이유에서 마소라 학자들의 교정의 노력을 전적으로 무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고르디스(Robert Gordis)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크티브/크레 체제의 출현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한다.<sup>4)</sup> 첫째, 고대자음 문서로부터 기록된 형태와는 다르게 읽는 전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Qere Perpetuum*이나 *Qere Euphemism* 같은 경우이다. 둘째, 자음본문에 모음을 표기할 때 따라야 할 원리와 체계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를 근거로, 자음본문에서 모음역할을 했던 자음들의 혼돈으로 인한 복수어미나 인칭어미 변화상의 오류, 또는 무의식적 실수로 드러난 오기들을 크레를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정확한 읽기를 가능케 했다. 끝으로, 수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다른 읽기전통의 문서들을 난외주에 대조본문으로 실는 크레가 등장하였다.

최근의 학자들은 크티브/크레 해석과 관련하여 개인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만큼 크티브/크레의 존재 자체가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전통의 긴 역사와 다양한 형성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sup>5)</sup> 더군다나 고르디스의 고전적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주목할 만한 사실은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전통의 마지막 단계에서 크티브/크레는 대조본문의 역할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성서본문의 다양한 읽기의 필연성이 본문형성의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기계적인 본문필사가 아니라 본문의 의미해석의 과정이 거룩한 문서의 기록과 전승단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따라서 오늘날 번역역가와 주석가에게 있어서 크티브/크레는 단순한 본문비평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 문학적 과제와 신학적 해석의 문제로 확장된다. 문학적-수사학적 읽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6)</sup>

4) Robert Gordis, *The Biblical Text: A Study of the Kethib-Qere* (Philadelphia: The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37), 29-54.

5) 크티브/크레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위해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Derek R. G. Beattie, "Kethibh and Qere in Ruth IV 5", *Vetus Testamentum* 21 (1971), 490-494; P. Cassuto, *Qeré-Ketib et Listes Massorétiques dans le Manuscrit B19a* (Frankfurt; New York: P. Lang, 1989); Jong-Hoon Kim, "The Tradition of the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II Samuel", *ZAW* 123 (2011), 27-46; Elvira Martín-Contreras, "The Phenomenon *Qere We La' Ketib* in the Main Biblical Codices: New Data", *Vetus Testamentum* 62 (2012), 77-87.

6) 문학적-수사학적 관점에서의 성서번역에 대한 이론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Ernst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 3. 욥기 30:22하반절의 ‘크티브’와 ‘크레’

욥기에서 ‘크티브’/‘크레’ 체제가 적용된 구절은 총 53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본문에서는 크티브의 교정으로서의 크레의 읽기전통을 좇고 있다. 특히, 문법적 교정들이 두드러진다.<sup>7)</sup> 그러나 30:22하반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레가 아닌 크티브를 선택한 본문들도 대략 3~4곳이 더 확인된다.<sup>8)</sup> 본 연구에서 그 가운데 유독 30:22하반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자들의 독법이 이 구절에서처럼 다양하게 드러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30:22 본문의 대표적인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MT תשאני אל־רוח תרכיבני ותמננני תשנה (תושיה)  
Qere Ketib

LXX ἔταξας δέ με ἐν ὀδύναϊς καὶ ἀπέρριψάς με ἀπὸ σωτηρίας

『개역개정』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표준』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성경』 저를 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폭풍 속에 내팽개치셨습니다

LUT Du hebst mich auf und läßt mich auf dem Winde  
dahinfahren und vergehen im Sturm.

RSV Thou liftest me up on the wind, thou makest me ride on it,  
and thou tосsest me about in the roar of the storm.

TEV You let the wind blow me away;  
you toss me about in a raging storm.

TNK You lift me up and mount me on the wind;  
You make my courage melt.

한글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성경과 독어성경은 크티브 전통을 따른다. 곧 바람 또는 태풍에 날려가는 욥의 가련한 신체에 대한 묘사로 번역

7) 욥 15:15; 16:16; 20:11; 26:14; 30:11 등.

8) 욥 6:2; 13:15; 24:6상; 39:12. 예를 들어, 24:6상의 경우, קצר 동사와 관련하여 크티브의 히필형이나 크레의 칼형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에 결정이 모호한 면이 있다. 그러나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한다는 사역형의 의미에서 번역자들은 크티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다. 포프(Marvin H. Pope) 역시 폭풍우 가운데 위아래로 흔들려 붕괴되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린다.

you lift me up and mount me on the wind  
you toss me about with a tempest.<sup>9)</sup>

클라인즈(David J. A. Clines) 또한 크티브를 선택하여 태풍 가운데 소멸되는 비천한 신세로 그리면서 폭우의 이미지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sup>10)</sup>

you snatch me up and make me ride on the wind  
you dissolve me with a downpour.

그러나 크티브 중심의 기존 번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본문비평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본래 크티브 전통의 자음인 תשואה를 תשואה나 תשא로 보충 또는 교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폭풍이나 태풍이라는 단어로 명사화시켜 22상반절의 תנן와 병행을 이루는 장점이 있으나 본문 크티브의 자음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문제는 여전히 자음 수정으로 인해 본래 크티브 본문의 쓰기에서 의도하는 תוו 동사의 pual형 2인칭 미완료형의 문법적 기능이 수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구드(Edwin M. Good)는 이 문제를 의식하여 본래 תוו 동사의 문법적 의미를 살려 “you level me”로 번역하였으나<sup>11)</sup> 이는 22상반절과의 평행법에 벗어나며 תוו 동사의 piel형의 기존 의미 영역과도 거리가 멀다.<sup>12)</sup>

대안으로서 학자들은 난외주의 크레의 읽기인 ‘תושיה(투시야)’를 따라서 ‘성공’, ‘지혜’, ‘승리’의 의미를 살리는 번역을 시도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유대인 성경인 TNK는 22하반절을 “you make my courage melt”로 번역함으로써 태풍의 이미지보다는 개인의 계획이나 성공과 관련된 용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칠십인역(LXX)은 태풍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σωτηρία(구원)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칠십인역의 본문 전통은 크티브보다는 크레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씨레스코(Anthony R. Ceresko) 신부도 크레에 준하여 “you sweep victory

9) Marvin H. Pope, *Jo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2), 218.

10) David J. A. Clines, *Job 21-37*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931.

11) Edwin M. Good,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with Transla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12) David J. A. Clines, *Job 21-37*, 956.

away from me”로 번역하며<sup>13)</sup>, 욥기의 수사학적 읽기를 시도하는 하벨(Norman C. Habel) 역시 크레 읽기의 맥락을 따르고 있다: “And then [you] made my success melt away.”<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크티브 읽기에서 견지되었던 평행법을 깨뜨리고 있으며 더 중요한 문제는 22하반절의 מוֹנִי 동사에 두 개의 목적어가 생기는 어려움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의 문제들이 똑같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본문에 대한 대부분의 번역들은 사실상 크레보다는 크티브를 따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번역자들이 그만큼 마소라 학자들의 크레 전통의 모음읽기 원리에 굳이 구애받지 않는 현상을 방증한다. 난외주의 지시보다는 본문내용의 자연스런 연결과 조화에 번역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석적 관점에서 독자들에게 본문을 더욱 잘 이해시키고 소통하게 하는 의미 동등성의 원리에 충실하려는 번역자의 의도가 한 몫을 차지한다.<sup>15)</sup>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문과 관련하여 크레보다는 크티브를 선택하는 요인이 본문주석의 과정에서 드러난다. 일례로, 이미 앞선 본문 30:19<sup>16)</sup>에서 욥은 진흙 가운데 내쳐진 상태를 한탄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22절 본문에 이르면 이번에는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내팽개쳐지는 이미지가 본문의 내용상 흐름에 더 잘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욥의 가련한 현실에 대한 자기비애적인 탄식이 “아래로 내쳐지고(19절)”, “위로 훑날리면서(22절)”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탄식시(lament psalms)의 맥락에서 태풍의 이미지가 지혜나 성공의 이미지에 비하여 자연스러워 보인다. 만일에 욥기가 전통적인 시편의 문학양식을 고수하고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욥기는 기존의 히브리 문학의 탄식시 전통을 깨뜨리고 있다. 욥은 시편 탄식시의 시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전제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sup>18)</sup> 도리어 욥은 끝까지 자신의 항변을 굽히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고발까지 나아가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20절)”, “주께서 돌이켜 ... 대적하시나이다”(21절). 그리고는 23절에서는

13) Anthony R. Ceresko, *Job 29-31 in the Light of Northwest Semitic: A Translation and Philological Commentary*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0).

14)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414.

15) Timothy Wilt,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27-80.

16)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개역개정』). 이하 한글성경 본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을 따른다.

17) William D. Reymann, *A Handbook on the Book of Job*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2), 551.

18)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cep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92.

끝내 “내가 아나이다”라고 자신의 지식을 고집할 뿐, 하나님 구원에 대한 신뢰의 간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히브리 시의 전통적 문학양식과 내용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다. 히브리 문학의 수사학적 비평의 선도자인 알터(Robert Alter)는 일정한 본문단락에서 기존의 문학적인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의도적 이탈(divergence)이나 변형(changes)의 수사학적 표현에 주목한다. 저자가 심어둔 의도적 이탈에 숨은 수사학적 의미를 파악할 때 정작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9)</sup> 번역자가 이와 같은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장치에 예민해질 때 새로운 조명이 본문에 가해진다.

#### 4. 읍기 30:22하반절의 번역과 수사학적 읽기

##### 4.1. 읍기의 수사학적 기술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 번역 책임자로 관계하고 있는 크리스프(Simon Crisp)는 현대 성서 번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발전 가운데 하나를 ‘문학적 방향 전환’으로 보고 있다.<sup>20)</sup> 더 이상 기능적 동등성의 이론 즉 형식보다는 내용 중심의 번역으로서 성서의 수사비평적 효과나 담화 분석을 통한 의미 도출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두드러진 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에 준하는 문학 번역(Literary Translation)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읍기와 같은 책은 긴밀한 수사학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에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수사학적 문학비평의 관점이 더욱 필수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sup>21)</sup> 문학비평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본문인 30:22하반절의 번역을 재고하여 볼 때 이제까지 읽어오던 ‘태풍’ 이미지 중심의 크티브 선택 본문에서 간과되었던 ‘지혜’ 이미지 중심의 크레 읽기의 수사학적 독

19)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 1981), 97, 103.

20) 사이먼 크리스프, “현대 성서 번역을 위한 도전들”, 신현우 역, 「성경원문연구」 24 별책(2009), 205.

21) 읍기의 수사학적 구조에 대한 탁월한 논의들은 다음의 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다: R. Polzin, *Biblical Structuralism*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Y. Hoffman, “The Relation between the Prologue and the Speech Cycles in Job: A Reconsideration”, *Vetus Testamentum* 31 (1981), 160-170; Norman C. Habel, “The Narrative Art of Job: Applying the Principles of Robert Alter”, *JSOT* 27 (1983), 101-111;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s Polyphonic Text”, *JSOT* 97 (2002), 87-108.

특성이 새롭게 발견된다.

욥기에 동원되는 두드러진 수사학적 기술 중 하나가 역설(paradox)과 반전(twist 또는 reversal)이다. 문학적비평에서 역설은 모순적 상황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기술로 사용된다.<sup>22)</sup> 반전이란 등장인물의 언행이 내러티브 전개에서 뜻하지 않는 혹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sup>23)</sup> 역설은 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 가능하나 반전은 뜻하지 않게 다가온다. 그러나 역설과 반전은 기존의 문학적 관습과 기대에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역설과 반전은 등장인물에게는 차단되어 있는 정보가 독자들에게는 알려져 있기에 이야기 결과에 따른 극적 효과가 큰 기술이다. 욥기 내러티브와 같이 등장인물의 무지(無知)와 독자들의 전지(全知)가 대조적으로 드러난 이야기 전개에서는 역설과 반전의 기술은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건이나 담화에서 독자들은 역설적으로 그 본의를 간파하고 새로운 반전을 통해 극대화된 의미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역설은 욥기 7:17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는 기존의 시편 8:4의 사람이해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욥은 본래 사람에 대한 돌보심을 강조하는 시편의 관습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을 ‘풍자적 찬양’으로 한탄하고 있다.<sup>24)</sup> 그만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반전의 기술은 무의식적인 사건 전개나 등장인물의 언사에 관계한다. 욥기 9:17에서 욥은 “그가 폭풍(שַׁעֲרָה)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라고 탄식한다. 그러나 정작 38:1에 폭풍우(שַׁעֲרָה)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을 큰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42:5).<sup>25)</sup> 친구들과의 대화

22) 포켈만(J. P. Fokkelman)은 역설의 기술의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설명한다.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을 포기했을 때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냉정한 명령을 내린 하나님과의 유대관계도 더욱 친밀해진다: J. P. Fokkelman, “Genesis”, Robert Alter and Frank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50.

23) 대표적인 반전의 예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개와 하만의 뒤바뀌는 운명에 대한 내러티브이다: Jack M. Sasson, “Esther”, Robert Alter and Frank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340.

24) Samuel E. Balentine, *Job* (Macon: Smyth & Helwys, 2006), 139.

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의 깨달음에 대한 번역자들의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E. J. van Wolde, “Job 42:1-6: The Reversal of Job”, W. A. M. Beuken, ed., *The Book of Job* (Louvain: Uitgeverij



에 있어서도 욥은 소발에게 이렇게 반문한다(13:9상):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욥이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은 내러티브의 끝에 이르면 실제로 엄연한 현실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줄곧 친구들을 지켜보시다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이다(42:7-8).<sup>26)</sup> 욥기 내러티브는 요소요소에 이와 같은 문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수사학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4.2. 욥기 30:22하반절의 반전

욥기 30장은 욥기 전체에서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의 결론부인 29-31장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물론, 뒤이어 32-37장에 이르는 비교적 긴 엘리후의 언설이 나오고 있으나 38장 이후 하나님의 폭풍우 언설의 클라이맥스 직전 욥의 마지막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내러티브적 효과의 비중이 큰 부분이라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29장과 30장의 극명한 대조이다. 즉, 29장이 욥의 가장 행복했던 과거의 시기를 회고하는 장면이라면 30장은 욥의 가장 비극적인 현재의 상태를 탄식하는 장면이다. 이와 같은 대비는 31장에서 욥이 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인 법정소송(divine-human lawsuit)의 필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sup>27)</sup> 하벨은 30장 전체를 다음 장 31:35-37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법정소송에서 무고한 고통을 호소하는 욥의 최후 변론으로 본다.<sup>28)</sup>

새로운 발견은 31:35하반절에서 욥을 고발하는 자의 ‘고소장’을 요청하기에 앞서 욥 자신은 이미 본문 30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문 30:19까지 하나님은 3인칭이었다가 20절부터는 2인칭으로 갑자기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 욥은 피고인의 신분에서 원고 측 검사로 돌변한다. 본문 30:20-23에서 욥은 직접적으로 감히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욥의 불평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죄목으로 나열되면서 궁극적으로 원고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하나님에 대한 기소장(formal

Peeters, 1994), 248; 김상기, “욥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성경원문연구』 26 (2010), 40; 안근조, “욥기 42:6 번역의 문제와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51, 55.

26)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나 그대들 ...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27) 잔젠(J. Gerald Janzen)은 이와 같은 수사학적 구성을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묘사한다: 29장 과거의 회고 <-> 30장 현재의 인식 => 31장 마지막 맹세문. J. Gerald Janzen,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201.

28)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417.

indictment)<sup>29)</sup>을 완성한다:

20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 불평 1: 하나님의 침묵

21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 불평 2: 하나님의 잔혹

22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러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 불평 3: 하나님의 던져버림?

23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 기소 근거: 욥의 죽음 초래

신-인 법정소송의 맥락에서 불평 즉 고소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항목별로 배열한 뒤 최종적인 기소 근거로서 죽음으로 내몬 죄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 문학형식 곧 시편 탄식시의 문학적 관습에 익숙한 사람은 양식의 파괴를 곧바로 인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30:1-15와 30:16-19에서 고통스러운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을 토로하였고 이어 30:20-22까지는 직접적인 불평이 나왔기에 이제 23절 이후에는 구원과 생명을 향한 신뢰가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3절은 신뢰 대신 불신이 나오고 이후 24절 이하의 찬양과 송영이 아니라 통곡과 애곡으로 끝맺고 있다(24-31절).

욥기는 이 구절에서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한다. 전통적 개인탄식시의 형식을 빌리는가 싶더니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어놓는다(twist). 역설적으로 신뢰에서 불신으로, 광명에서 흑암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나아간다(24-31절).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탄식이 욥의 진심은 아니다. 욥기의 저자는 이러한 역설적 기법을 동원하여 본문 그대로의 죽음이나 애곡의 결론이 아니라 도리어 욥기 드라마의 결론부에 제시될 생명과 찬양의 삶으로의 반전(reversal)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22절인데 기존의 크티브 읽기는 반전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기소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최종 근거는 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

29) Norman Whybray,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8), 142.

이다(23절). 그 죽음의 요인들이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잔혹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본문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품성인가? 『개역개정』에 준하여 보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읊을 ‘던져버림’에 대한 묘사이다. 이를 하나님의 폭력으로 보면 되는가? 그러나 이는 이미 21절의 잔혹함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치 않으심에 대한 불평인가? 이는 또한 앞선 20절의 부르짖음에 대한 무응답의 묘사로 충분하다. 정작 22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읊을 죽음으로 내몬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가? 기존의 크티브 읽기는 단지 읊의 처량한 신세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처사에 대한 표현에 그치고 있다.

크레를 통한 대안적 읽기를 위해 먼저 22상반절을 살펴보자.

אל־רוח תשאני אֶל־רוח תרכיבני를 직역하면 “당신이 나를 바람으로 올리신다”가 된다. 전통적으로 **רכב**의 히필 동사는 말이나 마차에 오르는 행위로 물리적으로는 높은 위치로, 신분상으로는 관직이나 왕권으로 오르는 표현에서 주로 쓰인다.<sup>30)</sup> 물론 “바람에 날리다”라는 표현은 시편 1:4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נָרַח** 동사를 사용하여 ‘날아 흩어지는’ 의미를 강조한다. 반면에 읊기 본문에서는 ‘바람에 흩어지는(**נָרַח**)’ 표현보다는 ‘바람으로 오르는(**רכב**)’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이에 대하여 하벨이나 뉴섬(Carol A. Newsom)은 시편 18:10[11]에서 야웨의 “그룹을 타고 다니심”의 이미지를 연상하며 읊을 신적 자리에까지 높이 들어 올린 장면으로 해석한다.<sup>31)</sup> 그렇다면 22상반절과 22하반절은 전형적인 대조와 역설의 장면이다. 왜냐하면 높아짐을 기대하나 실제적으로는 비천하게 낮아진 상황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22하반절의 크티브 읽기로는 이러한 대조가 살아나지 않는다. ותמנני תשוה는 “당신이 나를 태풍에 휩쓸려가게 한다” 정도로 번역될 뿐이다. 22상반절과의 맥락에서 대조가 아닌 연속적 장면이다. 본문단락의 문학적 맥락은 이미 앞서 20절에서부터 대조적 표현으로 가득하다: “주께 부르짖으나”(20aα) vs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20aβ); “내가 섰사오나”(20bα) vs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20bβ). 또한 21절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설적 모습이 드러난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21상). 동사 “돌이켜”(הפך의 니팔형) 자체는 이제까지의 구원에서 갑자기 공격으로 돌변하는 하나님을 묘사한다: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21하).

30) 창 41:43; 왕상 1:33, 38; 사 58:14 등.

31)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421;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546.

이와 같은 대조와 역설의 문학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22하반절은 크레 읽기를 초청한다. 크레로 읽을 경우 תושיה תושיה는 “지혜를 흠어지게 하다” 또는 “성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다”의 직역이나, 아니면 “계획을 망쳐놓다”의 의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곧바로 22상반절과 대조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역설의 극적 효과를 상승시킨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욥을 바람으로 높이 고양시켜 성공적 삶을 살게 하다가 갑자기 그의 완전한 지식과 성공(투시아)의 삶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고발의 원인이 이곳에서 밝혀진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inscrutability of God) 변덕’이다. 번영의 삶을 한순간에 물거품 되게 한 이유 불가의 하나님의 처사가 고발근거이다. 욥을 죽음으로 내몰아 결국 통곡과 애곡(31절)으로 끝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 4.3. 욥기 30:22하반절의 번역

위에서 살펴본 욥기 30:20-23의 문학적-수사학적 맥락에 상응하는 새로운 번역이 요청된다. 크레 읽기에서 제안하는 תושיה는 구약성경에서 총 12번 나타나는데 이중 10번은 지혜서에 등장하고<sup>32)</sup> 2번은 각각 이사야 28:29와 미가 6:9에 나타난다. 예언서의 본문들이지만 여전히 지혜전승과 관련된 다.<sup>33)</sup> 거츠(J. C. Gertz)에 따르면 תושיה의 본래 의미는 “지성”이나 “분별력”으로 주로 חכמה의 특징적 성격을 규정하는 기능들을 드러낸다고 한다. 특히 잠언 8:12-21에서 지혜여인의 자기묘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실천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본성들로서 특히 נבונה(힘/능력)와 관련된다.<sup>34)</sup> 무엇보다도 왕이나 지배자들의 통치에서 요청되는 실용적인 지혜에 해당하는 성격으로서 지혜의 힘, 성공적 통치력, 또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도움과 안정 등의 의미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욥기에서 תושיה는 실제로 다양한 의미군을 이루고 있는데 총 6개의 본문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12 성공; 6:13 능력; 11:6 지식; 12:16 지혜; 26:3 큰 지식; 30:22 힘

5:12는 하나님께서 교활한 자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

32) 욥 5:12; 6:13; 11:6; 12:16; 26:3; 30:22; 잠 2:7; 3:21; 8:14; 18:1; cf. 시 38:8.

33) J. C. Gertz, “תושיה”,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rby, eds., *TDOT*, Vol. XV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6), 647-648.

34) *Ibid.*, 648.

서 תושיה의 보상적 의미를 가리킨다. 6:13은 욥의 탄식 가운데 자신의 “도움”과 “능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30:22하반절 본문의 고통의 상황 묘사와 맥락상 가장 가까운 용례이다. 11:6은 하나님 지혜의 오묘함과 관련된 부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뜻한다.<sup>35)</sup> 12:16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묘사한다. 26:3은 사람들에게 충고로 주어지는 실제적 지식을 일컫는다. 끝으로 30:22 본문은 “힘”을 택하고 있어서 얼핏 크레의 תושיה의 번역 같으나 실제로는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의 문맥상 크티브의 תשוה, 즉 바람이나 태풍의 이미지에 준하는 번역이다. 정리하면 욥기에서의 תושיה의 용례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고, 인간과 관련해서는 인생을 분별력 있게 설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능력이나 지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의 본문 30:22하반절에서 תושיה는 성공하는 인생의 능력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고 붕괴된 실패한 현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여 동사 מוג가 번역되어야 한다. 본래는 “밀려들다”, “파도치다” 또는 “녹다” 등의 어원론적 의미를 지닌다.<sup>36)</sup> 바우만(A. Baumann)은 시편 107:26<sup>37)</sup>을 예로 들어, 큰 파도의 일렁거림으로 인하여 위아래로 요동하는 공포어린 상황에서 허물어지는 존재를 묘사하기 위한 동사로 설명하면서 욥기 30:22하반절 또한 사나운 폭풍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욥의 고통스런 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sup>38)</sup> 그러나 바우만은 동시에 מוג 동사의 비유적 의미의 용례를 설명하는데 이곳에서는 시편 75:3이나 아모스 9:5와 같이 전 우주적인 또는 전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강조한다.<sup>39)</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클라인즈는 מוג 동사의 pole형을 “you **dissolve** me with a downpour”<sup>40)</sup>와 같이 “용해되다”로 번역하고 있으며 하벨은 “And then made my success **melt away**”<sup>41)</sup>에서처럼 “녹아버리다”로 번역한다.<sup>42)</sup> 이를 종합해 보건대 욥기 본문에서 크레의

35) Ibid., 649.

36) A. Baumann, “מוג”,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rby, eds., *TDOT*, Vol. VI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149.

37)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38) A. Baumann, “מוג”, 150.

39) Ibid., 151.

40) David J. A. Clines, *Job 21-37*, 956.

41)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414.

42) Cf.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Brill, 1953), 501a; Ludwig Koehler, Walter Baumgartner and Johann J.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M. E. J. Richardson, trans. and ed.

תושיה를 선택하여 מוון 동사와 상응하게 번역한다면 어떤 삶의 지혜나 계획 또는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으로 혼돈과 절망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을 표현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크레 읽기를 통한 새로운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תְּשֹׂאנִי אֶל־רוּחַ תְּרִכְיָבִנִי  
וּתְמוֹנְנִנִי תוֹשִׁיָּה

주께서 나를 바람 위로 높이 올리시고는  
성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 불평 3: 하나님의 변덕

22상반절이 ‘당신이 나를 바람에 들어 올리다’의 구조로 되어 있기에 평행법을 유지하기 위해 22하반절에서도 ‘(당신이) 나를 성공에 관한 한 망쳐 놓다’로 보고 최종적으로, “성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로 번역하였다. 얼핏 תושיה를 본문 그대로 목적어로 처리한 인상이 있지만 사실 본문 מוון 동사의 목적어는 1인칭 목적격 접미사로 표기되어 있는 “나를”이다. תושיה가 목적어가 아니라면 22상반절의 רווח처럼 전치사구로 번역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데 본문비평적 수정의 부담이 따른다. 물론, 22상반절에 비해 짧은 22하반절의 본문상의 훼손 등에 의한 탈락을 가정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본문비평적 첨가도 시도할 수 있다.<sup>43)</sup> 전치사 על이 תושיה를 이끄는 단어로써 보충된다면 מוון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문법적 난제뿐만 아니라 22절 내의 평행법 유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사실, 본문은 앞에서도 살펴본바 번역자들 간 의견이 분분한 난해 본문이라 명확한 문법적 설명이 힘들다. 크티브와 크레의 양자가 탈문법 또는 본문수정의 부담을 안고 있다면 적절한 번역을 위한 제3의 지표가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그 대안적 판단기준의 하나로서 문학적 맥락을 고려하는 번역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과 반전의 수사학적 맥락이 욥기 전체의 흐름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 5. 나가는 말: 번역비평적 제언

이제까지 욥기 30:22하반절의 크티브/크레의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본문

(Leiden: Brill, 1995), 555a.

43) 본문비평상의 수정과 첨가의 예들은 클라인즈(David J. A. Clines)의 본문비평적 노트를 참조하라: David J. A. Clines, *Job 21-37*, 956.

비평과 번역비평의 논의들을 주목하면서 어떤 읽기가 본문을 가장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마소라 텍스트의 크티브/크레의 형성사와 학자들의 수용태도들을 정리하였고 욥기 30:22 본문의 경우 대다수의 크티브 선택의 번역보다는 난외주의 크레의 지시에 따른 번역이 본래의 욥기의 문학적 표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번역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문학적-수사학적 비평 방법 중 하나인 역설과 반전의 기술을 통해 증명하고 그에 따른 대안적 번역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곳에서는 본문의 크티브/크레 선택과 번역의 작업 가운데 얻어진 통찰들을 통해 번역비평적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은 살아있는 본문의 세계에 담겨있는 수사학적 함의를 제공한다. 단순한 문자적 또는 내용적 일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통한 본문의 접근과 파악이 자칫 표면적 의미에 그칠 뻔한 번역을 심층적 의미까지 도달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욥기 30:22의 번역에서 단순한 욥의 고통의 묘사로부터 욥기 내 리티브 전체의 역설과 반전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결론에서의 욥의 새로운 도약을 내다보게끔 하는 수사학적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둘째,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은 딱딱한 문서의 감상과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저자와 원독자들 그리고 오늘의 번역자의 문화와 신앙공동체와의 소통을 추구한다. 따라서 단순히 원천언어에 대한 수용언어의 확정적이고 기계적인 번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동적인 세계로 번역자를 안내한다. 언어학의 문법적 체계와 문학적 심미의 세계와의 연결과 통찰이 풍부한 대안적 번역들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끝으로, 문학적-수사학적 읽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크티브/크레의 선택에 있어서 여전히 양자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준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 즉 좁은 의미에서 내용동등성의 원리로 크티브 또는 크레를 단조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학적, 감성적 성찰이 반영된 번역적 대안들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향후 “문학적 번역”은 번역자의 새로운 선택의 지표로 자리하기 위해서라도 계속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문학적-수사학적 번역의 한계 또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신앙공동체의 경전(Canon)의 번역이라는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는 과정 중의 번역이나 심미적 예술적 번역의 논의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므로 번역자들에게 원천언어와 수용언어 사이의 동등성의 개념은 견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는 인간 언어의 한계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여전

히 살아 있고 생동감 있는 의미 유기체로서의 성경의 본문과 신앙 공동체와의 끊임없는 대화는 오늘의 성경 번역자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어>(Keywords)

크티브/크레, 번역비평, 문학적-수사학적 번역, 역설, 반전.

Ketib/Qere, Translation Criticism, Literary-Rhetorical Translation, Paradox, Reversal.

(투고 일자: 2017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3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4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상기, “욥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성경원문연구』 26 (2010), 32-52.
- 안근조, “욥기 42:6 번역의 문제와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48-56.
- 싸이먼 크리스프, “현대 성서 번역을 위한 도전들”, 신현우 역, 『성경원문연구』 24 별책 (2009), 197-208.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 1981.
- Balentine, Samuel E., *Job*, Macon: Smyth & Helwys, 2006.
- Baumann, A., “מִנְיָן”,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rby, eds., *TDOT*, Vol. VII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149-152.
- Beattie, Derek R. G., “Kethibh and Qere in Ruth IV 5”, *Vetus Testamentum* 21 (1971), 490-494.
- Cassuto, P., *Qeré-Ketib et Listes Massorétiques dans le Manuscrit B19a*, Frankfurt; New York: P. Lang, 1989.
- Ceresko, Anthony R., O.S.F.S., *Job 29-31 in the Light of Northwest Semitic: A Translation and Philological Commentary*,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0.
- Clines, David J. A., *Job 21-37*,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 Fokkelman, J. P., “Genesis”, Robert Alter and Frank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36-55.
- Gertz, J. C., “הַמִּנְיָן”,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rby, eds., *TDOT* Vol. XV,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6, 647-650.
- Good, Edwin M.,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with Transla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Gordis, Robert, *The Biblical Text: A Study of the Kethib-Qere*, Philadelphia: The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37.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 Janzen, J. Gerald,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Kim, Jong-Hoon, “The Tradition of Key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II Samuel”, *ZAW* 123 (2011), 27-46.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Lexicon in Vetricis Testament libros*, Leiden: Brill, 1953.
- Koehler, Ludwig, Baumgartner, Walter, and Stamm, Johann J.,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M. E. J. Richardson, trans.

- and ed., Leiden: Brill, 1995.
- Martín-Contreras, Elvira, “The Phenomenon *Qere We La’ Ketib* in the Main Biblical Codices: New Data”, *Vetus Testamentum* 62 (2012), 77-87.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6.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A Concep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Orlinsky, Harry M., “Studies in the Septuagint of the Book of Job”,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6 (1965), 37-47.
- Pope, Marvin H., *Jo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2.
- Reyburn, William D., *A Handbook on the Book of Job*,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2.
- Sasson, Jack M., “Esther”, Robert Alter and Frank Kermode, eds.,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335-342.
- Tov, Emmanuel,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van Wolde, E. J., “Job 42:1-6: The Reversal of Job”, W. A. M. Beuken, ed., *The Book of Job*, Louvain: Uitgeverij Peeters, 1994.
- Wendland, Ernst R.,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 Whybray, Norman, *Job*,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8.
- Wilt, Timothy,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3, 27-80.

<Abstract>

**Deciding ‘Ketib’ or ‘Qere’ for Job 30:22b on the Basis  
of Literary-Rhetorical Translation**

Keun Jo Ahn  
(Hoseo University)

The task of this study is to decide whether we are to adopt ‘Ketib’ or ‘Qere’ for the translation of Job 30:22b. Most previous translations follow Ketib rather than Qere’s alternative reading. Exegetical reasons as well as historical emergence of *Masorah parva* are pursued in order to explain the translators’ decision of Ketib reading in Job 30:22b. This study, by contrast, aims to prove that Qere reading of the text is more appropriate because it reveals literary-rhetorical competence of the text.

Translators have not given much attention to ‘Ketib’/‘Qere’ system of the Masorah text. Also, their sensitivity to literary textures of the text has been questioned by literary critical scholars. However, a reconsideration of the masoretic marginal notes and detailed readings of the literary complex of the text emerge as one of the cardinal criteria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ng biblical texts.

This study first observes how the Ketib/Qere system was employed by Masoretes in its first phase and how the system has been utilized by modern translators. Second, the reasons for scholars’ taking Ketib instead of Qere in interpreting Job 30:22b are explored in both perspectives of textual critical analyses and exegetical studies. This work looks through various versions and readings of the text. Third, the literary features of the book of Job is emphasized. Regarding Job 30:22, the rhetorical skills of *paradox* and *reversal* are recognized. Based on these literary-rhetorical techniques, a new translation which adopts Qere reading is proposed. This new translation reflects literary-rhetorical effectiveness of the whole book of Job. Finally, some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of translation criticism are made with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literary-rhetorical translation.